

하서 김인후 연구*

권순열**

<차 례>

1. 서언
2. 의리와 불사이군
 - 1) 인종에 대한 의리
 - 2) 불사이군
3. 구도와 선계의 지향
 - 1) 구도
 - 2) 선계의 지향
4. 결어

<국문초록>

하서 김인후는 흔히 道學, 節義, 문학의 三絶을 갖춘 인물이라고 한다. 그의 생애는 지적 영웅들의 삶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 하서는 출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종을 만나게 되었다. 하서는 인종의 스승으로서 처음 만나면서부터 매우 의기가 투합했다. 그래서 인종은 ‘묵죽도’와 『주자대전』을 하서에게 하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하서에게 있어서 인종과의 만남은 빛과 그림자처럼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하서에게 있어서 인종은 성군의 자질을 가진 자기 존립의 근거였다. 그러므로 인종의 죽음은 하서에게 있어서 삶의 구심점의 상실이었다. 하서는 인종의 제삿날이 되면 난산 속에 들어가 밤새 도록 통곡하고 돌아왔다. 당시 하서의 심중을 잘 드러낸 것이 ‘유소사’이다. 이 시에서 하서는 극복하기 힘든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였다.

하서는 인종이 죽고 난 후 불사이군의 자세를 견지했다. 그러한 뜻을 극명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하게 보여주는 것이 옥과 현감 이후의 관직은 쓰지 말라는 당부이다. 하서는 불사이군의 정신을 시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전횡의사'이다. 전횡은 전국시대 제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다. 그도 한때는 다른 제후들과 더불어 천하를 두고 경쟁을 했다. 그런데 나라는 망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이 시는 절개를 굽혀야 하는 상황에서 장렬하게 자결한 전횡과 오백 용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서는 이 시를 통해 절의를 굽혀야 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이다.

하서의 학문은 『소학』과 『대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서는 주자를 공자의 학문을 제대로 전승한 진유라고 추앙하였다. 그래서 주자의 학문하는 자세를 그대로 따르면서 공자를 정신적 스승으로 섬겼다. 그리고 하서는 도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天命圖」를 저술하였고, 천문·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하서는 학문에 전념하면서 질곡의 세월을 시주로 달랐다. 그러므로 하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도연명과 비슷한 점이 많다. 하서는 도연명과 신교를 맺고 그의 삶을 연모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연명은 전원에 은둔하여 자연과 일치하려는 삶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하서는 전원에 은둔해 있었지만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상을 접어본 적이 없었다. 하서는 세상과 떠나 살면서도 세상에 대한 끈을 놓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하서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포용을 통해서 위대한 유학자로 대성한 것이다.

핵심어 : 도학, 삼절, 인종, 불사이군, 소학, 천명도

1. 서언

金麟厚(1510, 중종 5~1560, 명종 15)의 자는 厚之이며, 호는 河西澹齋이다. 전남 장성에서 출생했다. 하서는 5세부터 부친 참봉 공에게 수학하였다. 그러므로 하서 학문의 기초는 趨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0세에는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던 慕齋 金安國에게 나아가 『小學』을 읽었다. 『小學』은 선비들의 필독서이며 학문의 기본서로 존신되었던 책이며, 특히 모재가 향교에 권했던 책이기도 하다. 이후 하서는 『小學』과 『大學』에 침잠하게 된다. 『大學』의 경우는 천 번이 넘도록 읽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하서의 학문은 『小學』과 『大學』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서는 31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이듬해에 사가독서를 하였다. 그리고 34세에는 홍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 설서로 승배되었다. 이때 춘궁에 있던 세자와 만나게 되었다. 이분이 훗날 인종이다. 하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은 인종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서에게 있어서 인종과의 만남은 찬란한 빛과 짙은 그림자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서는 이 빛에 눈이 멀지도 않았고, 그 그림자에 매몰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빛을 자양으로 어둠을 극복하고 한국 유학사에 있어 불후의 인물로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서가 인종의 비극적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위대한 유학자로 대성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하서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서에 대해 흔히 道學, 節義, 文章의 三絶을 갖춘 인물이라고 한다. 이것은 하서가 전인적 인격을 갖춘 인물임을 말한다. 하서는 도학과 천문, 지리 등 학문적 업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문을 남겼다. 하서의 시는 흔히 침착하고 俊偉한 것으로 일컬어진다.¹⁾ 그러나 하서의 시문학을 간단한 몇 마디 말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가난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 보여준 하서의 절의는 후세 호남 사람들이 정신적 좌표를 설정하는 데 큰 지침이 되었다. 특히 임진란 때 자신과 가문을 던져 조국을 지킨 호남의 의병활동은 바로 하서가 보여준 절의와 그 궤를 같이 한다. 그 외에 하서는 서예에 있어서도 신묘한 경지에 올랐다. 이러한 예술적 관심은 호남이 조선 중기 학문과 예술의 중심에 서게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1) 허 균, 『惺所覆瓿稿』, 卷之二十五, 說部四, 「惺叟詩話」 참조.

2. 의리와 불사이군

1) 인종에 대한 의리

하서와 인종이 만나게 된 것은 하서가 34세(1543, 중종 38)에 홍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 설서로 승배되면서부터다. 이때 하서와 인종 두 사람은 매우 의기가 투합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인종은 하서에게 목죽도를 하사하고 제화시를 짓게 했다. 그리고 『朱子大全』 한 질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의기투합만으로 하서가 인종에게 입은 은총이 그렇게 특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평범한 은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하서는 그것을 그야말로 아주 특별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은 하서의 인식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 다른 사람의 호의와 배려를 귀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있을 수 없는 처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서에게 있어서 인종과의 만남은 빛과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다. 하서에게 있어서 인종은 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성군의 자질을 가진 인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성군을 도와 지치를 이룰 수 있는 宰輔로 생각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서가 인종을 만나면서부터 정치에 대한 인식에 있어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평소의 하서와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당시 인종이 춘궁에서 덕을 기르고 계셨는데, 중종이 보도의 책임을 전적으로 선생에게 맡기셨다. 인종은 선생의 학문과 덕이 훌륭함을 깊이 이해하고 성심으로 존경하여 소대가 또한 잦았으며, 선생도 또한 잠룡의 덕이 천고에 뛰어나서 후일에 당우의 성대를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성껏 계도해서 계우가 날로 두터웠다. 선생이 입직해 있을 때는 춘궁이 더러 몸소 나와서 조용히 문난을 하고 이속해서야 과하였다.²⁾

2) 時仁廟毓德春宮 中廟專委輔導之任於先生 仁廟深知先生學問道德之懿 誠心敬禮 召對頻仍 先生亦以爲潛龍之德 度越千古 異日唐虞之治 庶幾可期 至誠導迪 契遇日隆 其在直廬 春宮或賜躬臨 從容問難 良久而罷. (김인후, 『河西先生全集』, 附錄卷之三,

인종에 대한 하서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하서는 인종에 대해 성군의 자질을 가진 인물로 보았다. 이것은 바로 스승인 자신은 성군을 이끌어 지치를 이룰 재보로 인식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때 까지만 해도 하서는 인종을 통해 나름대로 정치적 이상을 펼치려고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인종이 불의에 봉어한 것이다. 하서에게 있어서 인종의 죽음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하서의 실망이 너무 지나친 측면이 강하다. 이것은 어쩌면 하서의 유아기 때 체험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참봉 공이 주홍사의 천자문을 구수하는데 선생은 눈여겨보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봉 공이 짜증을 내며, “자식을 낳은 것이 이와 같으니, 필시 병어리인 모양이다. 집안이 일어나지 못하겠구나.”라고 하였다.³⁾

하서의 5세 때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로 보아서 하서는 어려서 말문이 늦게 터졌던 것 같다. 집안을 이끌 대들보의 말문이 터지지 않으니, 가족들의 초조감은 높아만 가고 참봉 공의 짜증도 억제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서 자신도 심한 자신감의 결여를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기 때 하서의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 사람은 참봉 공이었고, 출사기 때 이 부분을 지탱해 주었던 사람은 인종이었다. 그런데 하서의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인종이 봉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종의 죽음은 하서에게 있어서 삶의 구심점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구심점을 상실한 하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그렇게 넓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다고도 할 수 있다. 대운과 손을 잡고 험한 宦海를 방랑하면서 구차한 삶을 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었다. 하지만

年譜)

3) 參奉公口授周興嗣千字文 先生瞠視而不答 公恚曰 生子如此 必是啞也 門戶不振矣。
(김인후, 『河西先生全集』, 附錄卷之三, 年譜)

평소 성인의 길을 꿈꾸었던 하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성수침은 기묘의 화란이 있을 것을 알고 성시에 숨었고, 성운은 동기간의 슬픔을 당하고서 보은에 숨었으며 이황은 동기가 화를 입은 것을 상심하여 예안으로 물러갔고, 임억령은 아우 백령이 어진 이를 해치는 것을 보고 놀라 외지에서 세상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또한 서경덕이 화담에 은둔한 것과, 김인후가 벼슬에 뜻을 끊은 것과, 조식·이항이 바닷가에 숨어서 살았던 것 등은 모두 을사년의 사화가 격분시킨 것입니다.⁴⁾

조현이 공주의 州學提督官으로 있을 때 學政의 폐단을 논하면서 올린 상소문의 일부이다. 당시 뜻있는 선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선비들 중에는 제민의 뛰어난 경륜을 지녔다 하더라도 환해에 부침하다 결국에는 오욕만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멸문의 화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1498(연산군 4)년에는 유자광에 의하여 김종직의 제자들이 수난을 겪었던 戊午史禍가 있었다. 6년 뒤인 1504(연산군 10)년에는 연산군의 생모 문제로 많은 선비들이 죽음을 당하였다. 그리고 1519(중종 14)년에는 조광조를 따르던 신진 사류가 대부분 사약을 받거나 원지에 유배를 당했다. 그야말로 선비들의 수난 시대였다. 그런데 1545(명종 즉위)년에는 乙巳士禍가 일어난 것이다. 문정왕후를 배경으로 한 소윤이 대운과의 정권 쟁탈 과정에서 수많은 선비를 희생시켰다. 하서의 경우 부모님이 乞養을 이유로 외직인 옥과 현감으로 나와 있었다고는 하나 인종의 스승이었다. 그러므로 대운에 가까운 인물인지라 소윤의 입장에서 보면 기피 대상이었다. 그래서 하서는 산수에 은거하며 理學에 힘을 쓰며 강학을 통해 내일을 기약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인종에 대한 인간적 그리움과 군자로서 세상

4) 成守琛知有己卯之難 而隱於城市 成運身遇鶴原之慟 而藏於報恩 李滉心傷同氣之被禍 而退居禮安 林億齡駭見 百齡之戕賢 而棲遲外服 又如徐敬德之遷于花潭 金麟厚之絕意名宦 曹植李恒之幽栖海隅 莫非乙巳之禍 有以激之也. (『宣祖修正實錄』, 卷二十, 19年 10月 1日)

에 대한 안타까움을 억누를 수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년 7월의 기일을 당하면, 언제나 기일에 앞서 술을 가지고 산중으로 들어가서 한없이 통곡하였다. 선인이 평소 깊이 사모하여 시를 지었는데, “해마다 7월이 되면, 일만 산중에서 통곡하네.”라 하였으니, 그 사실을 읊은 것이다.⁵⁾

인종의 기일을 당했을 때의 하서의 모습이다. 하서는 집의 남쪽에 있는 卯山 속에 들어가 밤새도록 통곡하고 돌아와 의지할 데가 없는 듯이 하였다.⁶⁾ 하서가 인종에게 보였던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극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삶의 구심점을 상실한 하서에게는 인종에 대한 회상이 그나마 정신적 위안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종과의 만남은 유명을 달리한 극과 극의 만남인지라 과거의 기억이 강하게 오버랩되어 상실감이 증폭될 뿐이었다. 그러나 한편 매년 돌아오는 7월은 거부할 수 없는 날이면서도 과거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하서의 아픔은 이때에 극에 이르렀다가 또 다시 슬픔을 예비하곤 했다. 때문에 처음부터 극복될 수 없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君年方向立하니	임금의 나이 서른이 되려 하고
我年欲三紀라	내 나이는 서른여섯이 되려 하네.
新歡未渠央하여	새로운 즐거움 반도 누리지 못했는데
一別如絃矢라	한 번의 이별 활줄의 화살 같네.
我心不可轉이요	내 마음은 변할 수 없고
世事東流水라	세상일은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과 같네.
盛年失偕老하여	한창 때 해로할 이 잃어버리고
目昏衰髮齒라	눈 어둡고 머리와 이도 시들어 버렸네.
泯泯幾春秋오	적적하게 살기 몇 해이던가
至今猶未死라	지금껏 아직도 죽지 못했네.

5) 每值七月諱辰 輒前期携酒入山 號哭無節 先子平日嘗所艷慕 有詩云 年年七月日 痛哭萬山中 蓋實迹也. (정홍명, 『畸翁漫筆』)

6) 박세채, 『南溪集』, 卷第八十一, 行狀, 河西先生金公行狀 참조.

柏舟在中河하니	백주는 하수의 종류에 있고
南山薇作止라	남산엔 고사리가 돌아났네.
却羨周王妃가	도리어 부럽구려 주나라 왕비는
生離歌卷耳라	생이별로 권이를 노래했으니.
‘有所思’ ⁷⁾	

하서가 인종의 죽음을 겪고 난 후에 지은 시이다. 제목을 ‘有所思’라고 한 것으로 보아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유소사’란 이름은 漢代의 악부인 饒歌 18曲 중의 하나이다. 원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유소사’로 알려져 있는 유희이의 ‘대비백 두옹’도 인생무상의 정서가 짙게 드러나 있다. 하서는 이 ‘유소사’에 영원한 이별의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어쩌면 하서의 경우는 버림받은 여인이거나 내쫓긴 신하의 경우보다 더 외롭고 고달픈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1행부터 4행까지 첫 단락은 이별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한 사람은 서른 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서른여섯이다.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다. 이제 세상의 이치도 알 만큼 안지라 과거와는 또 다른 삶을 펼치고픈 기대와 설렘으로 밤잠도 설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승과 저승으로 갈리는 영원한 이별을 당한 것이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여유도 없었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이제는 어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5행부터 8행까지 중간 단락은 이별한 뒤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비록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지만 자신의 마음은 일편단심 변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세상의 일도 동쪽으로 흐르는 물처럼 옛날과 같이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고 세상의 흐름도 달라지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하지만 이미 세월은 흘러 눈도 어둡고, 머리도 희어지고, 이도 빠지는 현상은 어쩔 수 없었다. 마지막 단

7) 김인후, 『河西先生全集』, 卷之三, 五言古詩.

락에서는 입을 잃어버린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고백하고 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적절하게 살아온 것이다. 하서는 이러한 자신의 심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시경』의 내용을 원용하고 있다. 11행의 전거는 『詩經』, 國風, 鄘風, 柏舟章이다. 柏舟章을 통해서 비록 죽음에 이른다 해도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없음을 맹세하고 있다.⁸⁾ 다시 말하면 몸은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입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12행의 전거는 『詩經』, 國風, 召南의 草蟲章으로 보인다. 남산에 올라 고사리를 뜯으며 입을 보고자 하는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⁹⁾ 그렇다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입이 아니다. 때문에 ‘卷耳’로 안타까운 이별을 노래한 주나라 왕비가 오히려 부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⁰⁾ 하지만 하서에게 있어서 이별은 극복할 수 없는 아픔만은 아니었던 같다. 이별은 둘 사이의 아픔이면서 또한 만남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아픔을 극복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 제목을 ‘유소사’로 했지만 정서의 흐름은 오히려 無名氏의 ‘古詩’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2) 불사이군

예로부터 절의의 선비는 추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신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인데 그것을 억제하고 자신의 몸을 깨끗이 보존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궁궐 속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킨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하서의 경우 비록 병마로 시달리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조정의 부름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다. 더구나 자신의 이상을 펼 수 있는 淸職의 경우엔 사양할 수 있는 명분이 약했다. 그러므로 자신을 가다듬고 절실한 사정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8) 『詩經』, 國風, 鄘風, ‘柏舟’ 참조.

9) 『詩經』, 國風, 召南, ‘草蟲’ 참조.

10) 『詩經』, 國風, 周南, ‘卷耳’ 참조.

요임금, 순임금을 곡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부모를 잃어 갈 수 없었습니다. 울고 부르짖어 기절하니 생명을 보존할 희망이 없었고, 질병이 오래되었습니다.11) 다행히 겨우 죽음을 면했습니다.11)

부름에 나아갈 수 없는 하서의 진정을 아주 곡진하게 담고 있다.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요약해 보면, 첫째 자신의 형편이 부모님의 상후라는 것, 둘째 겨우 죽음을 면했지만 오랜 질병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임금의 부름을 사양할 수 있는 명분으로는 너무 약하다고 봐야 한다. 부모님의 상은 대상을 치르면 관직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질병은 누구나 손쉽게 둘러댈 수 있는 핑계이다. 하지만 하서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험성도 수반될 수 있었다. 이러한 변명을 구실로 정적들이 하서를 제거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서가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전혀 몰랐거나 예견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요순 같은 선왕의 사부로서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서의 내면에는 두 임금을 결코 섬기지 않겠다는 결의가 치솟고 있었던 것이다.

君侯抱耿光하여	군후가 밝은 빛을 안고
奮起自諸田이라	전씨 집안에서 떨쳐 일어났네.
羣雄逐鹿日에	못 영웅들이 사슴을 쫓던 날
唾手橫戈鋌이라	손에 침을 뱉고 창칼을 들었네.
何圖馬上翁이	어찌 생각했으리 마상의 늙은이가
乘龍而御天가	용을 타고 하늘에 오를 줄을.
拂袂入海島하니	소매를 떨치고 섬에 들어가니
滄波天接連이라	푸른 물결이 하늘에 접했네.
念昔始擧兵에	생각해 보면 옛날 군사를 일으켰을 적에
與彼相竝肩이라	저와 서로 어깨를 견주었네.
豈可更屈節하여	어찌 다시 몸을 굽혀
甘心服驅牽가	달갑게 견제를 받는단 말인가?

11) 哭助華之未幾 失怙恃而無及 攀號隕絕 頓無望於生全 疾病支離 幸僅免於死滅. (박세채, 『南溪集』, 卷第八十一, 行狀, 河西先生金公行狀)

勿頸謝使者하니	목을 찌르며 사자에게 말을 전하니
白日凝寒煙이라	밝은 날에 찬 연기가 엉기었네.
同行五百人의	함께 간 오백 의사들의
魂骨俱坑墳이라	혼백도 함께 구덩이에 묻혔네.
餘風尙凜凜하니	남은 바람 아직도 늠름하여
舉杯哭墓前이라	잔을 들어 무덤 앞에 곡을 하네.
‘田橫義士’ ¹²⁾	

하서가 의사 전횡을 노래한 시이다. 전횡은 전국시대 제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다. 제나라 왕 田榮이 죽자 아들 廣이 즉위하고 전횡이 정승이 되어 도왔다. 그런데 한신이 쳐들어와 제나라를 멸망시켜 버렸다. 전횡은 할 수 없이 자신을 따르는 오백 용사와 함께 섬으로 들어갔다. 전횡이 후에 반란을 일으킬 것을 염려한 한고조가 부르기를, “전횡이 오면 크게는 왕으로, 작게는 후로 봉할 것이다. 오지 않으면 장차 군대를 동원하여 그를 주살할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하지만 전횡은 “처음에 나 전횡과 한나라 왕은 모두 남면하여 왕이 되어 孤라고 자칭하였지만, 지금은 한나라 왕은 천자가 되고, 나는 망명을 다니는 포로가 되어 북면하면서 그를 섬겨야 하니, 이 치욕을 참기 어렵게 되었다.” 하면서 한고조의 제의를 물리치고 결국 자결로써 비장한 최후를 마쳤다. 전횡은 장렬한 죽음으로 제나라의 종말을 무지개처럼 찬란하게 수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대장부의 길이 얼마나 당당하며, 절의가 君侯의 지위보다 낮지 않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두 문객도 극한 상황으로 내몰린 자신의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함을 아는 지사들이었다. 그리고 전횡을 따르던 제나라의 마지막 용사 오백 명도 자신들의 죽을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용사들이었다.¹³⁾

이 시는 영사시로 전횡의 고사를 통해 하서의 심중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서가 역사적 사실에 집착하여 전횡의 고사를

12) 김인후, 『河西先生全集』, 卷之三, 五言古詩.

13) 사마천, 『史記』, 卷九十四, 田儻列傳 참조.

서술하는 데 치중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전횡의 고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우회적으로 담는 데 보다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시의 전반부는 전횡이 쓸어져 가는 제나라를 구하기 위해 떨쳐 일어났으나 결국 사태가 여의치 않아 황해의 섬, 전횡도로 들어간 것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한때는 서로 천하를 두고 겨루었으나 절개를 굽혀야 하는 상황에서 장렬하게 자결하는 전횡과 오백 용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전횡을 위해 곡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하서가 절의를 굽혀야 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이다.

전횡의 절의를 통해서 자신의 시정을 노래한 시로 도인 이송인의 ‘嗚呼島’가 있다. 이송인은 결국 이 작품 때문에 삼봉 정도전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다. 물론 정도전이 이송인을 제거한 것은 비단 이 ‘오호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오호도’가 빌미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송인이 이 오호도 때문에 불귀의 객이 된 것을 하서가 몰랐을 리 없다. 알면서도 이러한 시를 쓴 것이다. 그렇다면 하서의 ‘전횡의사’도 이송인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쓴 시로 보아야 한다. 하서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지라 소윤의 어떤 유혹에도 초연할 수 있었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옥과 현감 이후의 관직은 쓰지 말라는 말에서도 하서의 평소 의중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다.¹⁴⁾ 하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不事二君을 실현한 것이다.

14) 박세채, 『南溪集』, 卷第八十一, 行狀, 河西先生金公行狀 참조.

3. 구도와 선계의 지향

1) 구도

하서가 처음 학문을 접하게 된 것은 5세 때 부친인 참봉 공을 통해서였다. 유가의 일반적 교육방법은 易子教之였다. 그런데 하서의 가문은 趨庭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참봉 공이 교육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참봉 공이 직접 서당을 열어 교육을 하면서 하서까지 포함하여 교육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가정 형편이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상황에서 훌륭한 선생에게 보내어 교육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호남의 많은 가문들이 교육의 이상적 방법으로 역자교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추정을 택한 것도 가문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서는 10세 때에 모재 김안국에게서 『小學』을 배웠다. 하서가 김안국에게 『소학』을 배웠던 것은 당시 독서의 경향과 관련이 있었던 같다. 『소학』은 특히 조선 초기부터 선비들의 필독서였다. 그것은 『소학』이 『대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소학』을 四書와 함께 五書로 칭하면서 선비가 읽어야 할 기본서로 존신한 것이다. 하서도 당시 이런 독서 경향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서가 스승으로 모셨던 김안국은 도학에 달통한 당대 대표적 학자였다. 그는 小學童子로 자처했던 김굉필의 제자로 『소학』을 보급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하서와 김안국과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안국이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파직을 당하고 이천으로 귀향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하서는 가학을 통해 모든 학문을 자득한 것으로 보인다. 하서의 연보를 살펴보면 11세부터 17세까지의 수학 기간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이 기간은 학문이 정립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도 대학자의 문하에 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학을 통해 학문의 토대를 닦았다는 것을 말한다. 하서는 이 기간 동안 학문은 물론 서예까지도 높

은 수준에 올라 眞草와 篆隸가 신묘한 경지에 도달했다. 그리고 하서가 1527(중종 22)년 18세에 이르러서는 동북에 유배와 있던 新齋 崔山斗 문하에 출입했다. 그런데 하서가 최산두 문하에 출입했던 시기에 대해서는 『河西先生全集』과 『新齋集』의 기록이 다르다. 『신재집』에 따르면 최산두가 1521(중종 21)년 거소에서 강단을 여니 원근에서 유생들이 모여들었고, 이때 하서도 수학한 것으로 되어 있다.¹⁵⁾ 그렇다면 그때 하서의 나이는 12세였다. 이렇게 6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하서가 최산두 문하에 나아가 학문을 치열하게 닦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미 학문의 터전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도학의 대체를 전수받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서 학문의 연원이 기준, 김안국, 최산두, 박상, 송순 등과 닿아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학 과정을 보면 하서의 학문은 가학과 자득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너무 억지로 연원을 연결하려는 작금의 연구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하서가 『소학』과 더불어 평생 동안 심혈을 쏟았던 것은 『大學』이었다. 그래서 대학을 천 번 이상을 읽었다. 『대학』의 성격을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학』이 유학의 입문서이며 帝王學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므로 이 책을 버리고서는 도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대학』이야말로 수신과 치인의 요목을 종합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하서의 이런 태도는 주자의 학문을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서는 평생 공자와 주자를 존송하면서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고 산 것이다.

天地中間有二人하니
仲尼元氣紫陽眞이라
潛心勿向他岐惑하여
慰此摧頽一病身하라
‘示門人’¹⁶⁾

천지 중간에 두 분이 계시니
중니는 원기이며 자양은 진유네.
마음을 가라앉혀 탄 길에서 미혹되지 말고
늙고 병든 이 한 몸을 위로해 다오.

15) 최산두, 『新齋集』, 연보 참조.

이 시는 하서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인 것이다. 앞 단락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뒤 단락에서는 간곡한 부탁을 담고 있다. 천지간에 두 사람이 있는데, 공자는 천지의 큰 기운을 타고 난 분이며 주자는 성인의 학통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전승한 眞儒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자에 대한 극도의 추존이다. 유가 대부분의 선비들은 이런 저런 잡된 부분이 있는데 오직 주자만이 참된 선비라는 것이다. 이 眞儒란 말은 정이천이 정명도를 기리기 위해 썼던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하서가 주자를 추존하기 위해 다시 이 말을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하서가 주자에 얼마나 경도되어 있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서는 주자의 학설을 철저히 신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하서 당시에는 주자의 학설이 크게 도전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주자의 학설에 대해 異論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점차 대두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 대해 하서가 나름대로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이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한가한 시간 날씨가 따뜻하면 곧 오륙 명의 관동을 데리고 대숲가와 연못가를 노닐며 시를 읊고 돌아오며, 종자들을 돌아보며 이르길, “학문을 함에는 또한 반드시 때때로 기수에서 목욕하고 뜰의 풀이 어울려 푸르른 뜻을 체인하여야 바야흐로 다소 진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⁷⁾

하서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하였다. 성리학은 물론 천문, 지리, 의약, 음양 등 다방면의 학문에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하지만 하서가 이룩한 도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 용이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周易觀象篇」과 「西銘事天圖」 같은 그의 주요 저술들이 유실되어 참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사상을 극명하게 보여

16) 김인후, 『河西先生全集』, 卷之七, 七言絶句.

17) 박세채, 『南溪集』, 卷第八十一, 行狀, 河西先生金公行狀.

주고 있는 것은 「天命圖」라고 할 수 있다. 하서는 당시 중대 관심사였던 이기설 논쟁에도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하서의 견해가 직접 드러난 경우도 있었지만 기대승의 견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다. 그래서 하서는 자신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작성한 것이 그의 「천명도」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천명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른 학자들에 비해 현실을 중시하고 있다.¹⁸⁾ 그렇다면 하서의 도학은 실천유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인종의 죽음 후에 보여준 의리정신이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하서는 學이란 知行이 아울러 나아가고 안팎이 서로 닦아져야 한다고 하였다.¹⁹⁾ 이런 그의 주장을 통해서도 학문에 대해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도 하서가 전인적 인격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선계의 지향

조선조 선비들은 뜻을 얻으면 나아가 자신의 이상을 펼쳤고, 뜻을 잃으면 강호로 물러나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했다. 강호에서의 삶은 대개 학문의 탐구와 현실에의 적응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실에 적응하고자 할 때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강호를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연 속에 처하여 천지자연의 이치를 음미하며 즐기는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

김인후는 호남 사람으로 젊어서 재명이 있었고 항상 시주로써 스스로 즐겼다.²⁰⁾

하서에 대한 사관의 논평이다. 이것으로 보아서 하서는 宦路에서 현달

18) 윤사순, 「河西 金麟厚의 天命思想」,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第一輯(河西紀念會, 1994), 47쪽 참조.

19) 學莫如知行並進 內外交修. (송시열, 『宋子大全』, 卷一百五十四, 碑, 河西神道碑銘)

20) 麟厚湖南人也 少有才名 常以詩酒自娛. (『明宗實錄』, 卷十五, 8년 11월 22일)

이나 이상 실현의 기회를 추구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서가 젊은 날부터 벼슬길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학』에 대한 관심이나 『대학』에 대한 집착은 때가 오면 군주를 통해 자신의 이상을 펼치고자 하는 욕망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주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 철학을 펼치고자 했던 하서의 욕망이 다른 사람보다 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서가 그의 욕망을 포기한 것은 시대와의 간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그것은 도학의 탐구와 수신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만의 세계에 안주하고 살 수는 없었다. 선비는 강호에 처해도 임금을 염려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타협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하서의 내적 갈등이 증폭된 것이다. 그럴 때마다 하서는 걱정을 토로하고 시와 술로 갈등을 달랬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거나 술이 정신을 어지럽히는 데 이른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선생은 도정절에 대하여 ‘술잔이 오면 다 마시고 출세와 은둔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세대가 동떨어진 신교라 이를 만하다.²¹⁾

하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도연명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하서는 도연명의 삶을 연모하고 닮아가고자 하기도 했다. 시와 술로 시름을 달래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어떤 일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래서 하서를 도연명에 비유하기도 한다. 하서 자신도 ‘讀歸去來辭’라는 작품을 2수나 남기고 있다. 그만큼 도연명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연명과 하서는 현실에 적응해 가는 방법에 큰 차이가 있었다. 도연명은 전원에 은둔하여 자연과 일치하려는 삶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1) 然則先生之於陶靖節 所以觴來爲盡 不失顯默者 眞可謂曠世神交也. (박세채, 『南溪集』, 卷第八十一, 行狀, 河西先生金公行狀)

하서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하서가 시주에 정을 붙인 것은 밀려드는 시름을 달래기 위함이었다. 하서는 비록 전원에 은둔해 있었지만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상을 접어본 적이 없었다. 시주로 세월을 보내면서도 끊임 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강학을 계속 이어간 것이다. 하서는 세상과 떠나 살면서도 세상에 대한 끈을 놓은 적이 없다. 이런 점에서 도연명의 삶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坡山歸臥世情微하니
白日閒簷半掩扉라
黃卷政堪終夕對요
紅塵能向此間飛아
淸泠澗壑鳴環珮요
窈窕林巒繞障幃라
病裡僅成婚嫁畢하고
十年猶未製荷衣라
‘竹雨堂’²²⁾

과주로 돌아가 누우니 세상맛이 적어져
대낮에도 한가로운 집이라 사립문을 반쯤 닫았네.
서책은 종일토록 대할 만한데
홍진이야 이곳으로 날아오겠는가?
맑은 시내에선 구슬 소리 울리고
그윽한 봉우리들은 장막을 쳤네.
병 속에 겨우 남혼여가를 마쳤으나
십 년이 되어도 아직도 하의를 짓지 않았네.

죽우당은 청송 성수침의 당명이다. 성수침은 조광조의 문인으로 현량과에 천거되었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聽松이라는 편액을 내걸고 두문불출하였다.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경서에 전념하며 도학을 몸소 실천하였다. 이 시는 성수침의 이러한 생활을 노래한 것이다. 尾聯은 尙平의 고사를 원용한 것이다. 상평은 후한 시대 사람으로 은거하며 벼슬하지 않았다. 자식의 혼사를 마친 후에는 家事도 돌보지 않았다. 가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친 후로는 가사에 속박을 받지 않고 산 것이다. ‘십 년이 되어도 하의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세속에 얽매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미련은 성수침의 현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하서 자신의 삶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서는 성수침의 거처에 대한 묘사를 통해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낸 것이다.

22) 김인후, 『河西先生全集』, 卷之十, 七言律詩.

도연명과 하서는 강호에 살며 시와 술을 즐기는 삶을 살았다. 하서가 이런 삶을 추구하고 도연명을 흠모한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도연명과 천년 이상의 세월을 넘어 신교를 맺고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연명은 강호에 살며 자연의 이치를 즐겼고, 하서는 강호에서 강학에 힘쓰며 도학을 추구했다. 그리고 하서는 끝까지 세상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도연명과 하서는 다른 길을 갔다고 할 수 있다.

4. 결어

하서가 장성의 맥동리에서 51세로 졸하기까지 보여준 삶의 과정은 지적 영웅들의 삶의 궤적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道學, 節義, 文章의 三絶을 갖춘 하서의 위대한 삶은 특히 정조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그 후 정조의 평가가 하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폭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서를 위대한 인물로 대성케 한 요인들 중에는 인종의 승하로 인한 절망, 정적들과의 갈등, 학문에 대한 열정 등이 있다.

하서와 인종은 처음 만나면서부터 매우 의기가 투합했다. 그래서 목죽도와 『주자대전』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하서에게 있어서 인종과의 만남은 빛과 그림자처럼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하서에게 있어서 인종은 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성군이었으며 자기 존립의 근거였다. 그러므로 인종의 죽음은 하서에게 있어서 삶의 구심점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서는 도학에 힘을 쓰며 강학을 통해 내일을 기약하고자 했다. 하지만 인종에 대한 인간적 의리는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종의 기일이 되면 卵山 속에 들어가 밤새도록 통곡하고 돌아왔다. 당시 하서의 심중을 잘 드러낸 것이 ‘유소사’이다. 하지만 하서에게 있어서 이별은 극복하기 힘든 아픔이었다.

하서는 인종이 죽고 난 후 不事二君의 자세를 견지했다. 그러한 뜻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옥과 현감 이후의 관직은 쓰지 말라는 당부이다. 하서는 불사이군의 정신을 시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田橫義士’이다. 전횡은 전국시대 제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다. 그도 한때는 다른 제후들과 더불어 천하를 두고 경쟁을 했다. 그런데 나라는 망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이 시는 절개를 굽혀야 하는 상황에서 장렬하게 자결한 전횡과 오백 용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서는 이 시를 통해 절의를 굽혀야 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이다.

하서는 趨庭을 통해서 학문의 기초를 닦았다. 하서학은 『小學』과 『大學』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서는 주자야말로 공자의 학문을 제대로 전승한 眞儒라고 추존하고 있다. 그래서 주자의 학문하는 자세를 그대로 따르면서 공자를 정신적 스승으로 섬겼다. 그리고 하서는 도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천명도」를 저술하였고 천문,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하서는 학문에 전념하면서 질곡의 세월을 시주로 달렸다. 그러므로 하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도연명과 비슷한 점이 많다. 하서는 도연명과 신교를 맺고 그의 삶을 연모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서와 도연명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도연명은 전원에 은둔하여 자연과 일치하려는 삶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하서는 그렇지 않았다. 하서가 시주에 정을 붙인 것은 밀려드는 시름을 달래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 하서는 비록 전원에 은둔해 있었지만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상을 접어본 적이 없었다. 전원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강학을 계속했다. 하서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포용을 통해서 위대한 유학자로 대성한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김안국, 『慕齋集』
김인후, 『河西先生全集』
박세채, 『南溪集』
송시열, 『宋子大全』
정홍명, 『畸翁漫筆』
최산두, 『新齋集』
허균, 『惺所覆瓿稿』
사마천, 『史記』

2. 저서

조기영, 『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研究』, 아세아문화사, 1994.
———, 『河西詩學과 湖南詩壇』, 국학자료원, 1995.
하서기념회,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평화당, 1994.
향토문화개발협의회, 『河西 金麟厚의 道學과 文學思想』, 라이프, 1995.

3. 논문

권순열, 「늘재 박상 연구」, 『古詩歌研究』 第21輯, 韓國古詩歌文學會, 2008.
김동하, 「河西 金麟厚 先生의 生涯와 交遊 樣相」, 『古詩歌研究』 第21輯, 韓國古詩歌文學會, 2008.
박명희, 「河西 金麟厚의 瀟灑園 48詠 考」, 『우리말글』 제25집, 우리말글학회, 2002.
박준규, 「河西 金麟厚와 그의 詩文學」, 『錦湖文化』 제18집, 錦湖文化財團, 1985.

_____, 「河西 金麟厚의 文學史的 위치」, 河西思想學術大會發表要旨,
1993.

안 봄, 「河西 金麟厚의 文學思想 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허이중, 「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4.

황수정, 「眉巖 柳希春 文學 研究」, 『韓國漢詩研究』 14, 韓國漢詩學會,
2006.

투고일 : 2011년 7월 15일, 심사 : 2011년 7월 20일~ 8월 12일, 게재확정 : 8월 16일

<Abstract>

A Study on Haseo Kim In-Who

Kwon, Soon-yoel

Haseo Kim In-Who has been regarded as a man of three characters in moral philosophy, integrity and literature. His life had the same orbit as those of intellectual heroes. Haseo met king Injong immediately after he went into government service. He and king Injong understood mutually from when they met for the first time. So the king gave presents to him, Mukjukdo and an anthology titled 『Jujadaejeon』. However, he had a mingled feeling of light and shadow to the king. The king was a base of his existence as he had a quality of sage king. So, the king's death led to loss of his main reason to live. Haseo mourned overnight in the mountains on the memorial sacrifice day of the king. A poem titled 'Yousosa' describes his feeling at that time. As seen in the poem, separation from the king was such a great sorrow that he could not overcome.

Haseo maintained a position to serve but one king after the king was dead. He asked not to record his government posts since the officer at Okgwa, which definitely showed his integrity. He showed his integrity in his poetry. The most representative poem is 'Jeonhweingouisa'. Jeonhweing was the last emperor of Je Period in the age of Civil Age. He once competed to grasp the power to control all the world with other feudal lords. However, he was chased after his country collapsed. This poem describes the suicide of Jeonhweing whose integrity had to be yielded and 500 warriors. Haseo showed his integrity to die rather than to yield his integrity through the poem.

Haseo's philosophy is based on the 『Basic Learning』 and the 『Great Learning』. He respected Chu Hsi as a real Confucian as it was believed that he learned Confucius properly. So he regarded Confucius as his intellectual teacher, following academic attitude of Chi Hsi. Haseo wrote a book on moral philosophy titled 『Chomyeongdo』 and had a great interest in various fields such as astrology and geology. He wrote poetry to soothe his sorrow while studying hard. Therefore, his life is rather same as that of Tao Yenming. Haseo had intellectual exchanges with Tao Yenming and admired his life. However, Tao Yenming became a hermit in farms and identified with nature. However, Haseo never gave up his ideal for new society though he was a hermit too. He never gave up the links with society while living away from it. He became a great scholar through intensive interest in society and comprehension.

Key-words : moral philosophy, three characters, King Injong, service to but one king, Basic Learning, Chonmyeongdo.